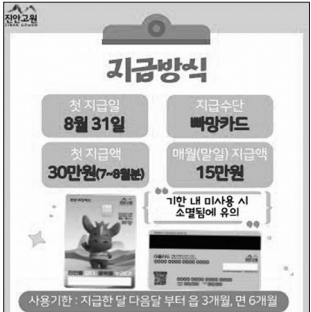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기대

진안군,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만남의 날' 개최

진안군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진안읍 로컬푸드매장 앞 광장(현 고추시장 운영 장소)에서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군정 슬로건인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우리동네 배망장터'를 열어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3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간단한 기념식과 함께 군민 중 진안읍과 정천면의 다자녀가족을 초청해 기본소득 카드인 '배망카드'를 전달한 후 지역상생과 면 지역 주민의 소비 편의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배망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방식

배망장터는 각 면 소비처가 참여하는 특선판매장으로 진안 고추시장 자리에서 진행된다. 읍 지역 주민들은 배망장터와 함께 진안로컬푸드 직매장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본소득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배망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이벤트 부스에서 진안산 무항생제 달걀 10개를 선착순 400명에게 한정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다. 사은품은 본 사업의 시스템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이비와 진안군 먹거리사업 추진단이 함께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시행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진안군은 지난 6월 선정돼 이달 말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군민 누구나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매월 말 배망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은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해 1인당 총 30만 원이 선불카드인 '배망카드'로 충전돼 지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NH농협카드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카드형 무주시랑상품권 활성화

무주군-NH농협카드, 협약 체결

무주군이 카드형 무주시랑상품권의 발급과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H농협카드와 협력에 나섰다.

무주군은 NH농협카드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무주시랑상품권 운영 앱이 한국조폐공사의 '착(Chak)'으로 전환됨에 따라 카드형 무주시랑상품권 체크카드의 원활한 발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체크카드 기반 무주시랑상품권 개발과 이용 편의성 증대, 시스템 운영 안정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무주시랑상품권은 NH농협카드에서 발급한 체크카드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페이를 통한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 사용 방법은 일반 체크카드와 같으며, 상품권 충전은 한국조폐공사

의 모바일 플랫폼인 '착(Chak)' 앱이나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시랑상품권 운영 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착(Chak)' 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무주시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이관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 낮 12시 50분까지 운영체계가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지류 상품권 구매와 카드 충전 및 결제, 가맹점 환전 등이 모두 중단된다.

무주시랑상품권은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사용이 재개되며, 이용자는 기존 고흥사랑페이 앱이 아닌 '착(Chak)' 앱을 새로 설치하고 회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주사랑카드는 '착(Chak)' 앱에서 회원 등록과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보유 잔액이 자동으로 이관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일부 카드는 기존 보유 잔액을 모두 사용한 뒤 지역 내 농협·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에서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K-축산기술' 현장 워크숍 개최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아시아 6개국 진행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전북대학교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장수군 일원에서 '철단 가족개량·번식기술 기반 장수 한우산업 현장 심화기술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 여건에서도 가족개량과 번식기술로 생산성을 높여 온 한국의 경험을 공유

하고, 각국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K-축산 기술패키지와 후속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의 축산산업 기술연수 과정에 초청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6개국 축산직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인 25일에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우수 유전능력 보유 개체를 조기에 선별하고, 생산성과 번식효율을 높이는 현장 적용사례를 다뤘으며, 26일에는 인공수정 기술을 통한 우수 유전자원 증식과 축군 구성 현장 체험이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체국 쇼핑몰에 '무주군 특별관' 입점

무주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 판매관을 운영한다. 무주군은 오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 '무주군 특별관'을 개설하고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에는 지역 내 68개 농가와 가공업체가 참여해 머무와인을 비롯해 한과, 꿀, 호두, 표고버섯, 사과, 사과즙, 천마 가공품 등 다양한 무주 특산품을 선보인다.

입점 상품은 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운데 규격화된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통산판매업 신고를 마친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무주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한다.

할인쿠폰 발행과 브랜드관 배너 광고를 비롯해 우체국 쇼핑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자우편 및 모바일 광고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한우 곤포 나르기 대회' 참가자 모집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환)가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대표 스포츠 프로그램인 '한우 곤포 나르기 대회' 참가팀을 오는 9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축제기간인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열리며, 약 200kg에 달하는 대형 원형 곤포를 팀원들이 힘을 모아 옮기며 승부를 겨루는 단체 경기다. 참가팀은 전국에서 모집하며 남성부



16개 팀과 여성부 7개 팀으로 나뉘 경기를 진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찾아가는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교육 열려

장수군은 지난 25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방정부 정책교육의 일환으로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균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의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의 가치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주민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장수군에 필요한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2027년 빈집정비 사업 확대 추진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28일 신약초타운 홍삼실에서 11개 읍·면 부읍면장과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재생사업 확대추진회'를 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빈집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해 5동 규모인 빈집재생사업을 올해 10동으로 확대하였으며, 1차 사업의 경우, 5세대 모집에 30세대가 지원하는 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빈집 재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7년에는 사업량을 총 20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